

광주시, 장애인들 사회 참여 돕는다

'장애인 진로·직업 통합 박람회'...10월 6~7일 김대중센터 취업연계·진로교육 등 온·오프라인 운영...대학 입학상담도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성장을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장애인 진로·직업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매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규모를 더욱 키운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6일~7일 2일간 '2022 광주 장애인 진로·직업 통합 박람회'가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장애인개발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 진로·직업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다. 장애인에게는 취업 자체가 어려운 편이라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설명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내놓은 '2021 장애인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15세 이상 전국 장애 인구 256만2873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94만9047명이고, 이 가운데 취업자는 89만3392명이다.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0%,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경제활동참가율(63.0%)과 고용률(60.2%)의 절반 수준이다.

드라마의 우영우처럼 대졸 이상 고학력을 가진 장애인의 고용률은 60.3%로 높지만, 전체 인구 중 대졸 이상의 고용률(73.9%)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졸 이상 교육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도 13.3%에 그쳐, 전체 인구의 대졸 이상 학력자가 39.0%인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장애인 구직활동 동기부여, 노동시장 진입 유도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욕구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 박람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의 진로·직업 체험과 취업 희망 장애인의 취업 연계가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통합박람회를 통해 비경제활동 성인 장애인의 취업 및 장애학생의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정보교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광주시·시교육청·장애인개발원 간 유사사업 통합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재능 활용을 통해 지역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단위 참여형 박람회로 개최한다는 게 이번 통합박람회의 취지다.

직업박람회는 '내일의 주인은 바로 나! 내 일을 잡(Job)하라!'는 슬로건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온라인으로는 취업처 안내가 진행되고 오프라인에서는 개막행사, 진로직업체험 및 부대행사가 열린다. 박람회 대상은 장애학생을 포함해 지역 장애인 3000여 명이다.

주요행사로 '일자리 탐색관'에서 일반사업체,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나와 채용면접 및 직업재활서비스 안내와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처 안내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3D, AR/VR, 드론, e스포츠 등을 이용한 직무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장애인복지관과 시교육청은 광주지역 내 직업재활서비스 안내와 교육공무직 채용제도 및 배치직종 소개하는 일자리 상담도 운영한다. 진로진학 상담으로는 대학 학과 체험과 대학 입학상담도 함께 준비된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장애인에게 취업은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고 경제적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써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열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더욱 키워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리산 노고단 가는 길 '산수국' 본격적인 여름을 맞은 지난 19일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1507m)을 오르는 탐방로 주변에 산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제공>

"행정·문화·돌봄 한 곳에서 누리세요"

북구 '신용행정복합타운' 개관...행정복지센터·도서관 등

광주시 북구 신용동에 행정·문화·돌봄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이 문을 열었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신용행정복합타운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북구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신용행정복합타운은 신용동 근린공원과 공공청사 부지(연면적 5251㎡)에 총 145억 원이 투입돼 2개 동으로 건립됐다.

행정동인 A동은 지난달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1층에는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 돌봄센터에서는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명의 아동(6-12세)이 돌봄을 받는다.

2층에는 회의실, 프로그램실,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섰고, 3층에는 생활문화센터 등이 조성됐다. B동은 신용도서관으로 1층에 어린이 자료실,

북카페가 꾸며져 있다. 2층에는 종합자료실, 3층에는 학습실, 프로그램실, 휴게실이 있고 4층은 옥상정원 등으로 꾸며졌다.

장서는 일반도서 1만 4000여 권과 아동도서 1만 1000여 권 등 총 2만 5000여 권을 갖췄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미디어월, 스마트 도서 추천, 좌석 예약 시스템 등을 구축했으며 RFID(도서관리자동화시스템) 기반 스마트 반납서가, 무인 예약 대출 반납기 등을 설치해 신속하고 편리한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을 위한 AR(증강현실) 동화구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인 북구정장은 "신용행정복합타운이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보호...주민홍보·현장계도 강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나팔고둥'(사진)이 식용고둥과 혼획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각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및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다.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

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해양,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I급), 흰발농게(II급), 갯게(II급), 붉은발발농게(II급), 대추귀고둥(II급), 기수갈고둥(II급) 등의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



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도심 호수 포획 '늑대거북'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최근 광주 도심 호수에서 포획돼 토종 생태 교란 우려를 낳은 민물 최상위 포식자 '늑대거북'이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등록된다. 이에 따라 늑대거북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데 제한이 생겨 무분별한 방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

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생태계 교란 생물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이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 판정을 받아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로 지정됐다. 이 중 늑대거북은 지난 5월 광주시 북구 운암에서 포획되기도 했다. 늑대거북은 성격이 사나우데다 턱 힘이 강력해 사람을 물어 중상을 입힐 수 있고, 국내에 천적이 없어

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늑대거북은 사람이 애완용으로 기르다 방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에는 별다른 규제 없이 마리랑 4만~50만원선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 다만 성체가 되면 40~50cm까지 자라 키우기 힘들어져 방사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교육·전시 등 목적으로 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사육·양도·양수 등이 금지된다.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6개월 내에 관할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농성1동 희망발걸음단, 복지사각지대 발굴·홍보 캠페인

광주시 서구 농성1동 벚꽃마을 희망발걸음단이 최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희망발걸음단은 26일부터 위원들이 주거 취약지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방문상담을 시작했다. 파악된 위기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차 상담을 진행하고, 위기가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9~20일에는 여름철 폭염·폭우 등에 취약

한 쪽방촌 및 노후 주택을 포함한 주거 취약지를 순회하며 세대에 홍보지를 배부했다.

벚꽃마을 희망발걸음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1인 가구나 돌봄·경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영숙 농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는 이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육 임대 및 특판 안내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육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방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임대 안내			
층	호실	임대면적	호별 위치도
1	101호	27평	1층 101, 102, 103
	102호	40평	
	103호	51평	
2	201호	27평	2층 201, 202, 203, 204
	202호	28평	
	203호	43평	
	204호	82평	
3	301호	금남플라자치과	3층 301, 302, 303
	302호	72평	
	303호	83평	
4	401호	103평	4층 401, 402, 403
	402호	72평	
	403호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경)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대 모집)	

무궁무진 MGMG 정기예탁금

1년 **3.3%**

고이율 입출금 통장

개인을 위한 **2.2%**
자신만민자유예탁금 최고

사업자를 위한 **2.5%**
등록기업자유예탁금 최고

MG골프클럽 특가

구분	이용기간	정상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조건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할인 금액 2만원)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